

문재인 시대 주목 받는 '광주형 일자리'

광주시 3년 전 직접고용 전환 새 정부 '비정규직 제로화' 반영 사람 중심 양극화 대안 떠올라

광주시가 3년 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시책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후 첫 걸재로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지지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광주시 정책의 철학과 내용에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

광주시는 민선6기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집중 추진해 지금까지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6명을 공무직으로 전환(60세 초과자 11명은 축적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연말까지 나머지 696명도 전원(60세 초과자 축적계약직 전환)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회적 책임실천 선언식을 가졌고, 노동조합을 시

정의 파트너로 존중한 결과 민주노동조합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는 사회공공협약을 체결하고 모범적인 노정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변화가 단기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의 신성을 지키는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사람중심의 철학, 출근길에 만난 비정규직 청소원과 스텝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의 탈권위적인 파격 행보, 민선6기 취임과 함께 신설한 사회통합추진단의 역할이 컸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2일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실무위원회'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인천공항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보면서 3년 전 직접고

용으로 전환했던 우리 시청 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이 생각났다"며 "일자리와 먹거리의 중심이 결국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 광주는 행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음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대선공약에 반영,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대협력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광주시의 일자리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식품안전 강화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2017년 '식품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광주시는 제16회 식품안전의 날(5월14일)을 맞아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시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시는 5년 연속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동구는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0만명 당 식중독 환자 수 ▲위생 점검률 및 적발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활동지수 ▲위해식품 회수실적 ▲수거목표달성률 ▲위해식품차단시스템 설치율 등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관리 18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시민 식생활 안전과 위생점검에 참여하는 위생공무원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 교육을 통해 위생감시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태블릿PC(현장보고장비)를 통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관·합동 교차단속 ▲찾아가는 식품안전진단 서비스(ATP측정기 활용) 실시 ▲시민과 함께하는 민간 감시체계 구축으로 식품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월 광주, 오감으로 느낀다 사단법인 광주학교(교장 송갑석)는 13~14일 서울시민 40여 명을 상대로 상무대 영장체험 등 광주 문화를 느끼고 배우는 '오월 광주1박2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광학교육 제공>

소외계층 김치나눔 참가 단체 모집

26~27일 광주김치축제 첫 행사

광주시는 김치를 담가 소외계층에 전달할 기업과 단체를 모집한다.

광주시는 계절별 축제로 전환한 제24회 광주세계김치축제의 첫 번째 행사로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봄&여름 우리집 새 김치 담는 날'을 개최하고 특별행사도 소외계층 김치나눔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장김치가 떨어지는 이맘때 소외계층에 맞춤형 새 김치로 정을 나누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신청은 19일

까지 광주시 생명농업과(062-613-3992)에서 접수한다. 기부 김치 가격은 배추김치 5만원(10kg).

한편, 봄&여름김치축제에서는 맛났던 새 김치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담글 수 있다. 토마토오이송송김치, 딸기·감자수확체험, 김치 유산균 관찰교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즐길 수 있다. 체험 문의·접수는 062-655-3601~3. /채희종기자 chae@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취업 지원 종합지원계획 을 하반기 시행 예정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복지연대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서를 기본으로 시, 시의회,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민·관 복지거버넌스 형태의 '발달장애인 복지정책 TF'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11월 발달장애인, 부모, 장애인 단체 등이 참여한 발달장애인 지원방안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의 발달장애인 종합지원 계획은 5개 항목 1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주거모델 보급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

동서비스 확대를 통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가족지원 사업 추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광주형 모델 개발 등 평생교육 지원 ▲발달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 지원 ▲위기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심터 운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대책 마련 ▲활동보조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실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장현 시장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인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권 유네스코 지질공원 추진 토론

29일부터 4일간 국제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세계지질공원 해외 및 국내 전문위원 12명을 초청해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지질공원 해외 전문위원 마르코 코막 등 6명과 국내 전문위원 이수재 박사 등 6명이 참여해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워크숍의 개최 결과는 7~8월로 예정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실사를 마친 유네스코에서는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쯤에 인증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난해 3월 대한지질학회(학회장 허민·전남대 부총장)와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해 4월과 5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영향력이 있는 유네스코 세

계지질공원(IGGP) 사무총장 패트릭 맥키버 등 3명이 참여하는 두 차례 예비심사에서 무등산권 지질유산의 세계적인 가치를 확인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11월29일에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유네스코에서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서에 대해 올해 3월까지 서류 검토와 서류 심사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준비하고 무등산권 지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지오스쿨, 토르와 나마 등 지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등산권역 특산물로 만든 음식과 숙박 등을 한데 모은 지오빌리지 구축과 지역민이 지질공원에 직접 참여하는 지오멤버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 통합지질관 광 활성화 및 세계화'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2019년까지 국비 18억원을 지원받아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세계적 명소만드는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족 모내기 체험' 18일까지 선착순 모집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쌀의 소중함과 농부의 땀방울을 느낄 수 있는 '윤가족 함께하는 손 모내기 체험' 행사를 위해 40가족(120명 내외)을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손 모내기 체험행사는 20일 친환경 벼 실종포장(광산구 용곡동)에서 열리며,

참가자들은 부대행사로 마련한 떡메치기, 탈곡, 벼를 쌀로 만드는 '도정' 등을 체험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40가족이며,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agri.gwangju.go.kr)의 '교육 및 공직사항'을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시술 전

시술 후

시술 전

시술 후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대산 종합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짐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심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10-8628-0482

광주 광역시 북구 증음동 373-14번지 1층 광주역 뒤 증음삼거리 부근